

中 도시상업은행의 부실 위험 증가

- 2019년 상반기 중국 은행업은 경기둔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나, 수익성 지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자산 건전성도 악화
- 은행 간 건전성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 도시상업은행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리스크가 고조
 - 최근 은행권 전반의 부실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상업은행의 NPL 비율이 10년래 최고치(2.3%)까지 상승하면서 은행 간 건전성 격차가 확대
 - 바오상, 진저우, 헝펑 등 중소형 도시상업은행들의 잇따른 구조조정과 함께 도시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으로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증폭
- 도시상업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조달구조도 불안정
 - 도시상업은행들은 비표준화자산 투자를 활용해 주요 고객인 지방정부용자플랫폼 및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자금을 제공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투자가 제한
 - 그동안 고객기반이 약한 중소형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비표준화 자산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대형과 주식제에 비해 도시상업은행은 은행간 거래,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시장성 조달 및 단기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유동성 리스크도 큰 편
- 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연쇄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
 -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해 온 도시상업은행들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부실화 위험도 증대
 - 도시상업은행 중 일부는 그림자금융 채널을 활용해 위험 차주에게 대출하는 경우도 있어 특정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가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정부의 금융리스크 억제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은행들의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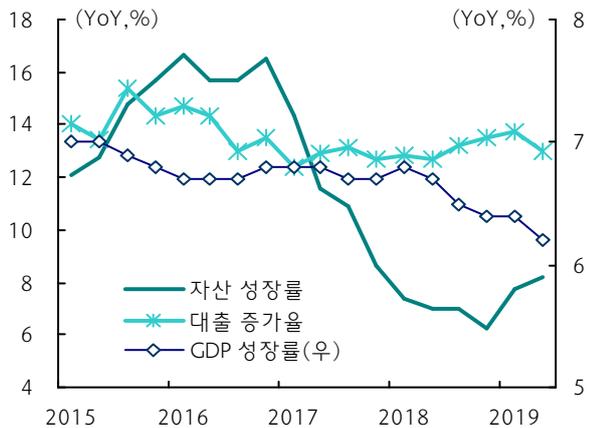
연 구 위 원 강 미 정 ***leykang@hanafn.com

I. 中 은행업, 양호한 성장 속 수익성 하락

- 중국 은행들의 자산 성장률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들어 소폭 반등
 - 중국의 경기둔화로 은행들의 성장세도 약화되면서 2018년 자산 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2019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
 - 대내외 수요 둔화와 함께 경제의 하강압력 지속으로 '19년 2/4분기 GDP 성장률은 '92년 이후 최저치(6.2%)를 기록하였으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둔화세가 지속
 - 반면, 대형상업은행의 성장률이 전년 6.0%(yoy)에서 올해 상반기 18.8%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도시상업은행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11.3%)을 회복
 -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 하에 대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영세기업 및 농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
 - '19년 2/4분기 중소형기업 대출(35.6조 위안) 중 여신 규모가 1천만 위안 이하인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은 약 27%로 전체 은행업 대출 증가율(13%)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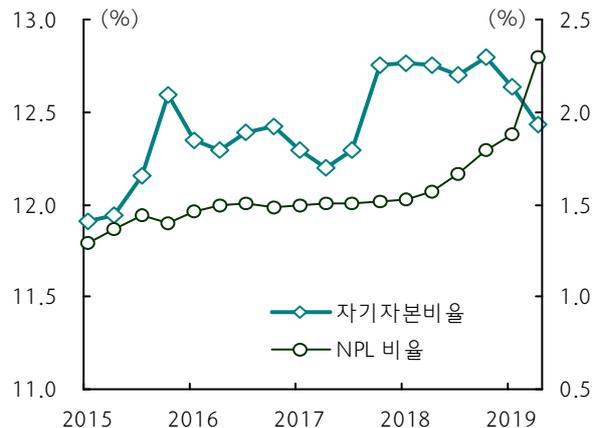
- 금융권 내 경쟁 심화와 NIM 개선 미흡으로 수익성은 저하
 - 중국 상업은행들의 ROE는 NIM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9년 상반기에는 13.0%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
 - '19년 2/4분기 NIM(2.18%)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큰 폭의 반등이 제한되면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를 심화

그림1 | 中 GDP 성장률 및 은행업 성장세 추이



자료 : CEIC

그림2 | 상업은행 NIM 및 ROE 추이



자료 : CEIC

- 대형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ROA는 모두 1%를 하회하고 있는데 주식제는 전분기 대비 0.02%p 하락한 0.99%, 도시상업은행은 0.06%p 하락한 0.83%를 기록

●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진출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약진 등으로 금융권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기반이 점차 약화

- 현재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으로 모두 빠른 성장세를 시현 중이며, 선두 주자인 위뱅크의 경우 '18년 말 기준 자산 규모(2,200억 위안)가 전년대비 약 3배나 급증

- 기존 은행 고객들의 온라인 금융상품 등 예금대체 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는 예금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영업기반 유지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대출금리 체계 조정은 은행들의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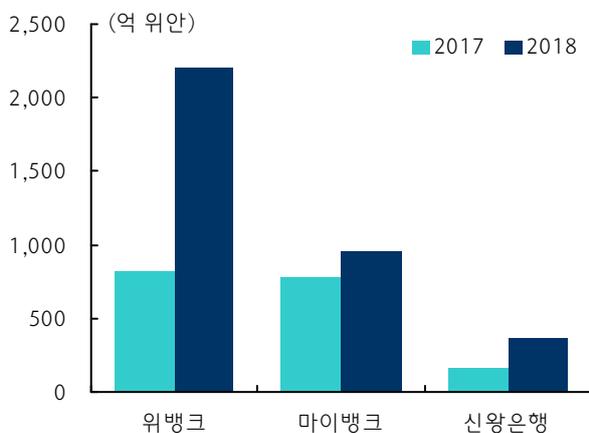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 新LPR 제도는 기존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를 참고해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우량 고객 최저 우대금리인 LPR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¹⁾

● 대출금리 체계 조정으로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은행들의 대출마진 축소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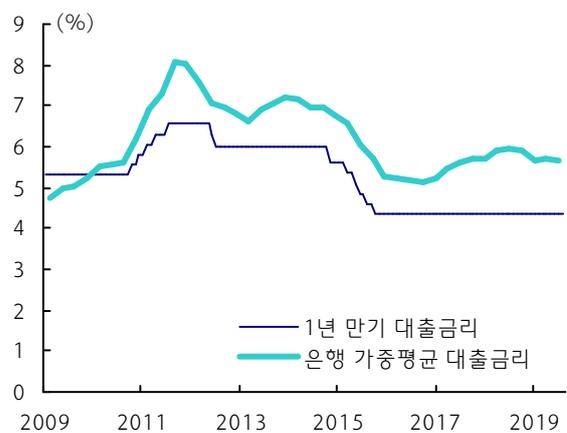
- LPR 적용 대상이 제도 개편 전 만기 1년물 1개에서 만기 1년 및 5년 이상 대출로 확대되면서 모기지대출 등 장기물에 대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림3 |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 추이



자료 : CEIC

그림4 | 중국 기준금리 및 은행 가중평균 금리 추이



자료 : CEIC

1) 전국은행간자금증개센터는 매일 20일 LPR을 공시하며, LPR은 개별은행(총 18개)이 보고한 LPR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 개별은행의 LPR은 공개시장운영금리(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 MLF)에 은행의 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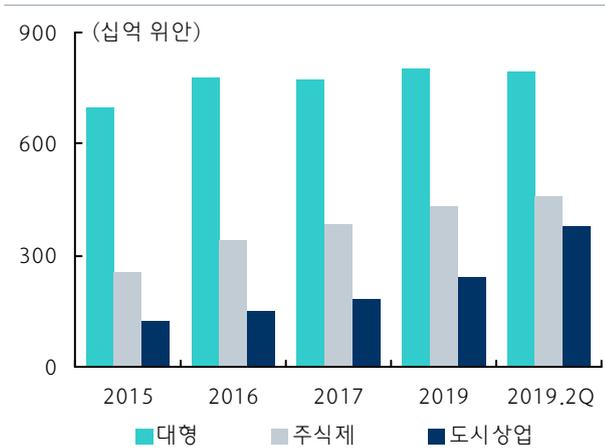
II.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 리스크 부각

1. 은행 간 건전성 양극화

- 최근 은행권 전반의 부실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상업은행의 NPL 비율은 10년래 최고치까지 상승
 - 2019년 상반기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2.2조 위안으로 전년말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40% 이상 급증 (3,771억 위안)
 - 경기둔화세 심화로 중국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부실여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영기업들을 중심으로 디폴트 사례가 증가
 - 대형과 주식제 상업은행의 NPL 비율이 소폭 하락한데 반해 도시상업은행은 10년래 최고치인 2.3%까지 상승하면서 은행 간 건전성 양극화가 심화
 - NPL(%): 1.87('18.3Q) → 1.83('18.4Q) → 1.80('19.1Q) → 1.81('19.2Q)
 - 대형 상업은행의 NPL 비율은 '18년 초 1.50%에서 올해 상반기 1.26%까지 하락하였으나, 도시 상업은행은 1.53%에서 2.30%로 약 0.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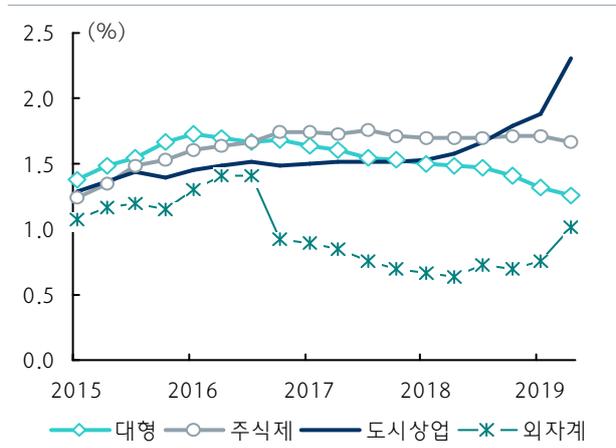
- 중소형 도시상업은행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증폭
 -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이 내몽고의 부실화된 소형은행인 바오샹은행을 인수한데 이어 진저우와 형평은행까지 연달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중소형은행들의 리스크가 고조

그림5 | 은행별 부실대출규모 추이



자료 : CEIC

그림6 | 은행별 NPL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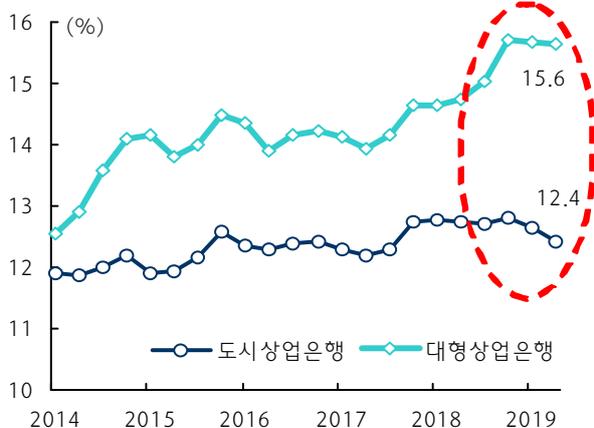
자료 : CEIC

- 금번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금융은 1998년 이후 처음이며, 은보감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바오상은행의 경영권을 회수하였으며, 고객예금의 90%까지 지급
- 더욱이 도시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대형은행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손실흡수 능력이 취약한 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
 - 중국 금융당국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10.5%이며,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11.5%
 - 도시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9년 6월 기준 12.4%까지 하락하면서 대형상업은행(15.6%)과의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바오상은행의 BIS 비율은 9.3%)

2.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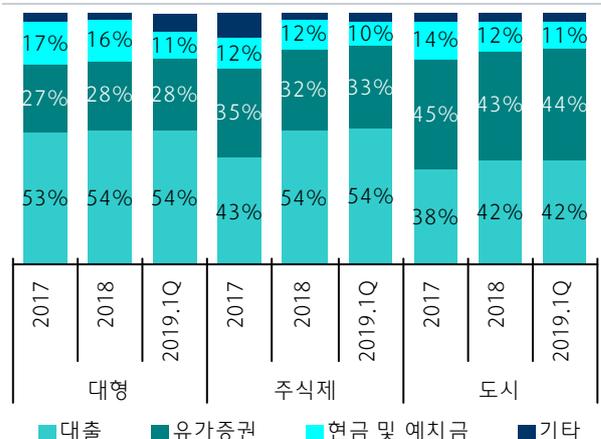
- 도시상업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자산 비중이 큰 편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적응도가 취약
- 대형과 주식제 상업은행들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상업은행들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가 대출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
 - 도시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비중은 40% 이상으로 대형과 주식제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귀양, 성도, 정주 등 일부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50%를 차지
- 도시상업은행들은 투자미수금(应收款项类投资) 항목 하에 비표준화자산(非标投资)²⁾ 투자 비중이 높는데 이를 활용해 주요 고객인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s)

그림7 | 대형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자료 : CEIC

그림8 | 주요 상업은행의 운용구조 변화



주 : 5대 대형상업은행과 데이터가 유효한 9개 주식제상업은행, 20개 도시상업은행(전체 도시상업은행 자산 중 약 40%) 기준
 자료 : 각 사 연차 보고서, SNL Financial

2) 비표준화 채권 자산은 은행간 시장 및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투자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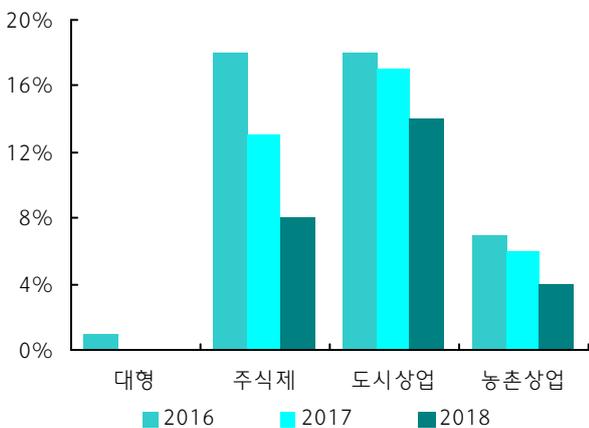
및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자금을 제공

- 많은 은행들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채권 성격이나, 총당금 적립 부담 및 건전성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일부 투자금액을 투자미수금 계정으로 분류해 옴
- 그동안 고객기반이 약한 중소형은행들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수익의 비표준화자산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투자가 제약
 - 정부는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하에 그림자금융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자산관리업무(WMP)에서 비표준화채권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
 - 주요 상장 도시상업은행의 자산 중 비표준화자산(대차대조표 상) 비중은 '16년 18%에서 '18년 14%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형(0%)과 주식제(8%)에 비해 높은 수준

■ 경기 둔화는 해당 지역의 기업여신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영업 위주의 도시상업은행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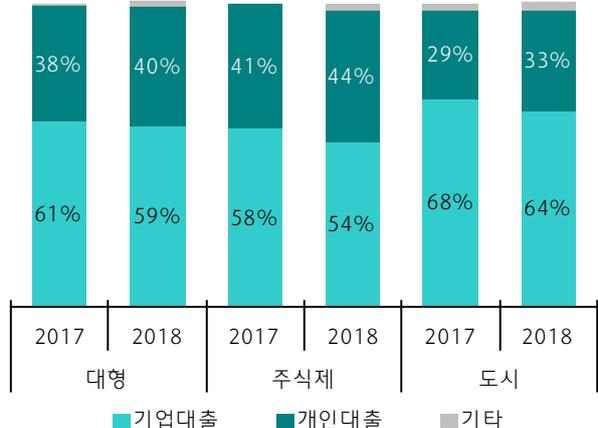
- 주요 도시상업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2018년 64%로 대형(59%)과 주식제(54%)에 비해 기업영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
- 도시상업은행은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경기둔화와 밀접하며, 정부의 과잉산업 구조조정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동북부 지역의 경우 NPL 비율이 3~4% 수준

그림9 | 주요 상장은행의 총자산 중 비표준화자산 비중



주 : 비표준화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기준
 자료 : 招商证券

그림10 | 대출 고객별 현황



주 : 5대 대형상업은행과 데이터가 유효한 11개 주식제상업은행, 20개 도시상업은행(전체 도시상업은행 자산 중 약 40%) 데이터 기준
 자료 : 각 사 연차 보고서, SNI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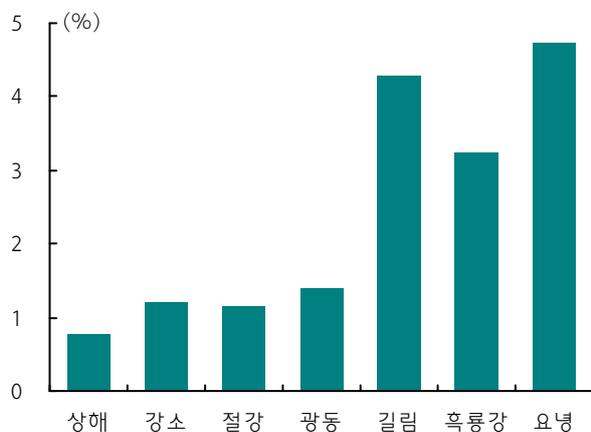
- 제조업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관련 부실률 상승으로 은행들은 양 부문에 대한 대출을 줄여나가는 추세
- 도시상업은행들의 경우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거시환경 변화 및 시장금리 주기에 민감해 실적 변동성이 큰 편

- 한편, 주요 상장 은행들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기업 영업 위주에서 소매금융으로 영업구조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상업은행들의 모기지대출이 급증³⁾
 - 대형상업은행인 중국은행(BOC)과 농업은행(ABC)의 총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8년 기준 각각 38.0%와 39.5%로 '08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
 - 주요 주식제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비중은 '18년 14% 수준으로 전년대비 1.9%p 상승

■ 대형과 주식제에 비해 단기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유동성 리스크도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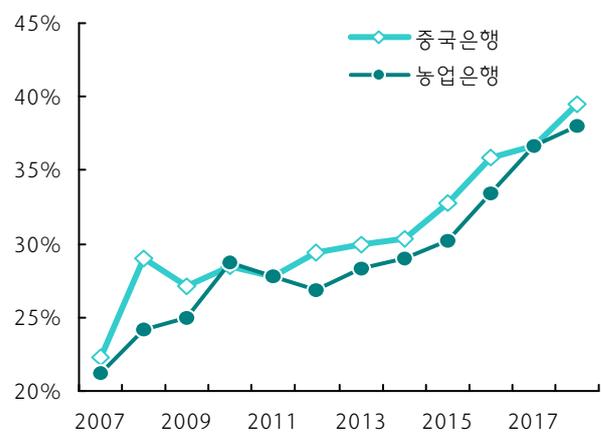
-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은행간 거래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성 조달 비중이 평균 25%로 대형과 주식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⁴⁾
 - 바오상은행의 경우 시장성조달 비중이 약 40%로 도시상업은행 평균을 크게 상회
 - 반면, 대형상업은행은 80% 이상이 예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비중도 상승 추세
- 은행들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은행간 금융상품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 은행의 자산 부족 시 타은행의 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어 '위기 전염'을 초래할 소지

그림11 | 지역별 NPL 비율 현황 (2018년 말 기준)



자료 : CEIC

그림12 | 中 대형 상업은행의 모기지대출 비중 추이



자료 : S&P Capital IQ

3) "銀行2018及1Q2019報告綜述：貸款加速投放，不良率仍在改善," 東方證券研究所, 상장은행은 대형상업은행 5개, 주식제 상업은행 8개, 도시상업은행 17개, 농업은행 2개 기준,

4)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9년 2/4분기 예수금 중 적립식상품과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 시장성수신 비중은 약 6% 수준

III.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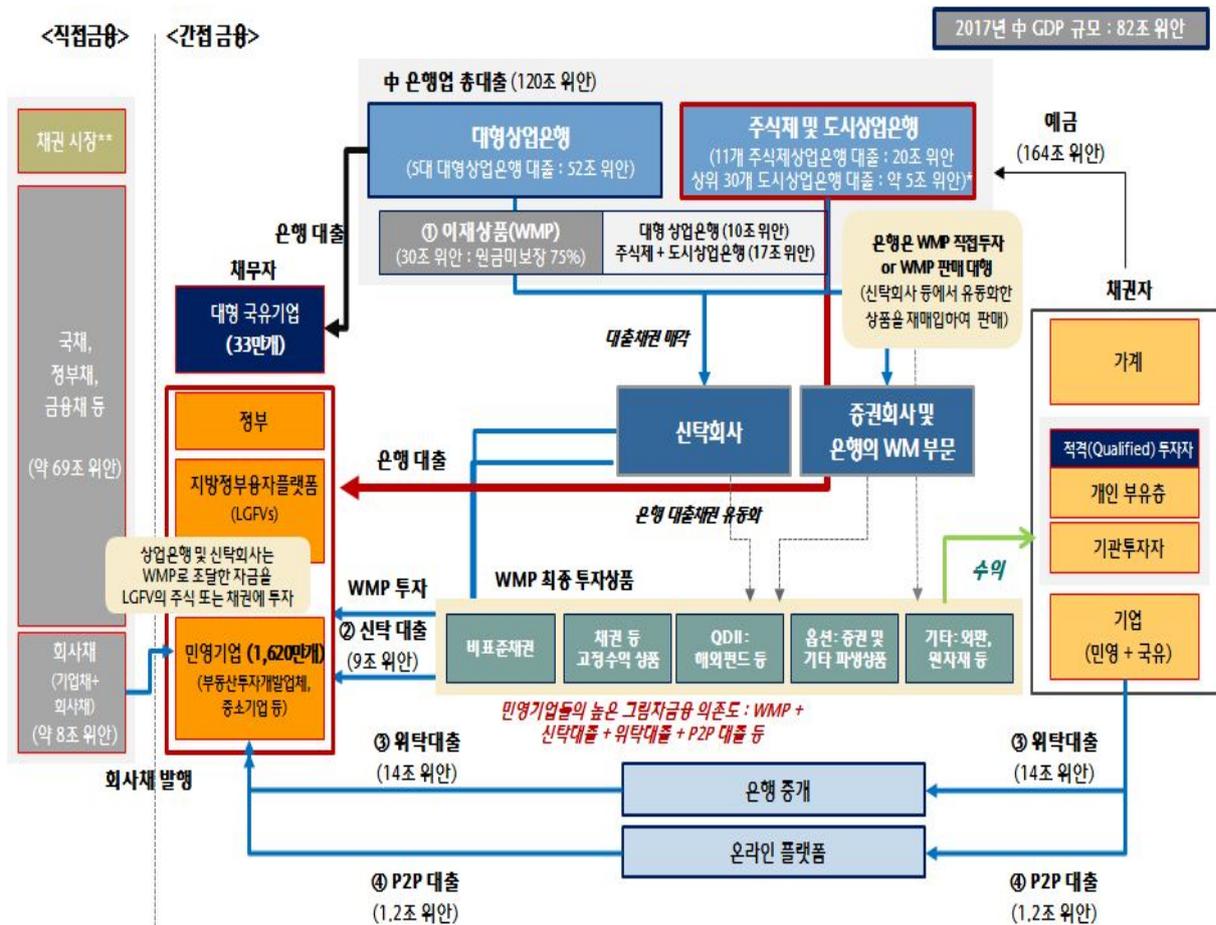
-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물지표 부진 및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등으로 추가적인 기업 부실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 하에 보수적인 영업을 강화할 경우 저신용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난은 더욱 심화될 소지
 -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은 경기하강 주기에 부실대출 대비를 위한 대손충당금 확대 및 저위험/저수익 자산으로의 전환 등으로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상존
 - 도시상업은행들의 경우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18년 76%)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시환경 변화 및 시장금리 주기에 민감해 실적 변동성이 큰 편
 - 외자계 은행들의 ROA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점 네트워크 및 상품 등이 취약해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통한 금리인하 등이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음

- 구조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조달기반이 불안정한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연쇄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
 -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해 온 도시상업은행들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부실화 위험도 증대
 - 철강, 조선, 석탄 등의 침체산업을 포함해 채무상환능력이 열위한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더욱이 중소형 은행 중 일부는 그림자금융 채널을 활용해 거액 대출을 단일 차주에게 제공해줌으로써 특정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가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중국 은행은 단일 기업 대출은 10%, 소속 계열사를 포함한 단일 그룹 대출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일부 은행들은 그림자금융 채널을 활용해 이를 회피
 - 또한, 도시상업은행들은 단기자금 및 시장성 차입비중이 높은 불안정한 조달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악화로 자금난이 가중될 경우 연쇄적인 부실 발생 등 신용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저신용 중소형은행들의 CD 발행이 어려워지고, 은행간 시장에서의 자금조달난도 심화될 경우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참고1> 중국 은행권의 자금경로 현황

- 상대적으로 중소형 은행들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구조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민영기업(부동산투자개발업체, 중소기업 등), 지방정부용자플랫폼(LGFVs) 등에 유입

참고1 | 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주 : * 12개 상업은행 중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형평은행 제외, 도시상업은행 134개 중 상위 30개(도시상업은행의 총자산은 40%)
 ** 채권시장은 발행 잔액 기준이며, BIS 기준 (1달러 = 6.53위안으로 계산), 기업채는 국유기업채를 의미
 *** 2017년말 기준, 신탁대출 위탁대출은 사회용자총액 중 금액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고2> 주요 상장은행의 2019년 1/4분기 재무제표

참고2 | 주요 상장은행 재무제표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은행	성장성			수익성				Ratio			
		대출	예금	총자산	이자이익	수수료 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NIM	ROA	ROE	NPL
대형 상업 은행	공상	15,529,602	22,574,651	29,246,572	148,190	46,136	235,501	82,690	2.31	1.16	14.35	1.51
	건설	13,783,611	18,053,818	24,190,914	125,075	43,029	187,066	77,925	2.29	1.31	15.90	1.46
	농업	12,155,507	18,447,181	23,657,926	119,113	29,218	173,031	62,121	-	1.07	14.96	1.53
	중국	11,941,096	15,645,212	21,616,555	89,381	27,355	141,034	54,788	1.82	1.02	13.03	1.42
	교통	4,952,528	6,106,174	9,785,747	34,857	12,056	61,100	21,347	1.59	0.88	13.00	1.47
주식제 상업 은행	초상	3,932,956	4,454,862	6,794,347	43,369	19,158	68,739	25,497	2.72	1.51	19.45	1.35
	홍업	3,011,109	3,505,788	6,697,707	24,708	11,301	47,619	19,786	-	1.20	17.64	1.57
	포발	3,521,179	3,566,768	6,549,576	31,446	11,976	50,084	16,625	-	1.04	13.88	1.88
	중신	3,626,001	3,821,218	6,241,410	28,070	15,448	47,410	13,402	1.96	0.88	13.12	1.72
	민생	3,090,398	3,320,096	6,196,748	22,022	13,875	43,859	15,968	-	1.05	15.09	1.75
	광대	2,447,922	2,842,135	4,520,309	24,233	6,955	33,843	9,751	2.28	0.88	13.12	1.59
	평안	1,997,321	2,308,782	3,530,180	20,774	9,560	32,476	7,446	2.44	0.86	12.15	1.73
	화하	1,669,321	1,608,032	2,793,622	13,091	6,012	19,509	4,643	-	0.68	7.88	1.85
도시 상업 은행	절상	871,897	995,229	1,701,286	8,479	684	11,618	4,463	-	1.07	-	-
	북경	1,289,434	1,501,058	2,637,501	11,647	3,202	16,978	6,374	-	0.98	14.36	1.40
	상해	857,726	1,090,093	2,061,522	6,821	1,825	13,015	5,035	-	0.99	13.98	1.19
	강소	906,277	1,214,175	2,005,475	5,252	1,540	11,125	3,836	-	0.78	14.66	1.39
	남경	499,339	866,725	1,318,233	5,641	1,063	8,691	3,350	1.96	1.04	19.00	0.89
	닝파	428,543	754,805	1,160,997	4,610	1,776	8,124	3,420	1.75	1.19	19.64	0.78
	항주	365,168	566,473	934,601	3,700	306	5,294	1,815	-	0.80	14.92	1.40
	장사	211,020	382,725	571,641	2,849	455	4,203	1,395	-	1.02	17.48	1.29
	귀양	178,989	324,206	526,662	2,887	206	3,532	1,329	2.42	1.04	17.48	1.46
	성도	191,334	358,443	508,886	2,449	88	3,003	1,268	-	1.00	15.92	1.51
정주	166,769	293,290	487,365	1,904	362	2,860	1,075	-	0.90	14.26	2.46	

주 : 대형상업은행 중 2016년 상장한 우정저축은행은 제외, NIM, ROA, ROE는 연환산
 자료 : 각 은행 연차 보고서, PWC

[참고문헌]

PwC(2019), 2019年第一季度中国上市银行业绩分析

东方证券研究所(2019), 银行2018及1Q2019报告综述：贷款加速投放，不良率仍在改善

Analysys易观(2019), 中国电子银行数字化升级白皮书

www.sohu.com(2019.5.8), 招商固收 | 银行非标投资全解构 (2019年版)

한국은행(2019),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개편내용 및 시장평가

국제금융센터(2019), 中 바오샹은행의 법정관리 평가 및 전망

하나 CEO 경영이슈

Hana CEO Issues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if.re.kr>